

진도군, 하반기 진도개 심사원 양성 교육 실시

9월 1일까지 접수...총 4차시 실시 예정

진도개 혈통 보존·관리 전문성 강화 기대

진도군이 진도개 혈통 보존·관리와 전문지식·소양을 갖춘 심사원 양성을 위한 진도개 심사원 양성 교육을 개설·운영한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교육에서는 도그쇼의 이해, 도그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스투어드 업무와 심사규정 등 참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알찬 교육으로 진행됐다.

하반기 교육은 9월과 10월 총 4차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애견 문화사, 진도개의 이해, 견체

학, 심사기법 등 진도개의 심층적 이해와 객관적인 심사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학력, 나이, 성별 제한 없이 진도개를 사랑하는 진도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1일(금)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진도개축산과 혈통관리팀 방문 또는 전화(☎061-540-6337)로 가능하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 심사원 양성과 자질향상을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대한민국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준비 '순항 중'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장흥군이 2010년 첫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시작하여 올해 제12회를 추진 중이다.

통합의학박람회는 양방과 한방에 더불어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사람중심의 의학'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발걸음이다.

이번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치유와 힐링, 통합의학과 함께!"라는 주제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7개관(▲향노화뷰티관 ▲건강증진관 ▲의료산업관 ▲통합의학관 ▲보양대체의학관 ▲건강음식관 ▲특산물판매장)에서 다양한 테마별 통합의학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주요 행사로 9월 8일 개막식에는 미스터트롯 출신 이찬원, 박지현 등의 축하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9월 9일부터 진행되는 전문가 강연은 김중권(건강강좌), 유화승(건강강좌), 최태성(역사강좌), 오한진(양방강좌), 김오곤(한방강좌) 등의 강사가 진행된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10일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실과소 및 읍면 운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및 읍면 담당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행사의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부서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 청소년 참여기구 '놀이 문화체험' 운영

장흥군청소년수련관(관장 하주자)은 지난 9월 '장흥군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여가·놀이·문화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는 총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기구는 어린이의 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정책제안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이뤄졌다.

장흥군 인근 지역 물놀이 체험장에서 진행된 이번 문화체험은 수련관 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기구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 아동참여기구는 장흥군청소년수련관에서 어린이의회 본회의를 통한 아동 법안 발의, 관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농산물 포전거래시 구두계약은 그만"

읍면사무소에 비치

해남군은 농산물의 포전거래시 분쟁을 막기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생산농가가 직접 시장 출하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농산물 포전매매시 산지 유통인과의 구두계약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인해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매매대금의 30% 이상 계약금 지급, 목적물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목적물의 반출기한, 당사자 간 위험 부담, 계약해제 사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 수확 지연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배추 등 주요 발작물의 재배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각종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군은 최근 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남요섭 광주지방방법원 장흥지원 판사)를 열고 총 9개 사업지구(2272필지/132만9857.9㎡)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강진군, '지적 불부합' 9개 지구 토지 2272필지 경계 조정

강진군은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경계를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진군은 최근 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남요섭 광주지방방법원 장흥지원 판사)를 열고 총 9개 사업지구(2272필지/132만9857.9㎡)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강진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강진읍 장전지구(351필지/237,744.2㎡)·송현지구(155필지/104,210㎡)·군동면 시목지구(317필지/132,965.3㎡)·내동안풍지구(312필지/118,076㎡), 칠량면 현천지구(312필지/213,533.4㎡)·사부지구(153필지/163,708.5

㎡), 병영면 낙산지구(202필지/113,978.9㎡)·상고지구(214필지/121,491.6㎡)·중고지구(256필지/124,150㎡)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새 단장 마치고 문 연다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9월 1일 재개관

완도군은 장보고기념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8월 1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장보고기념관은 해상 무역 왕인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해양 개척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개관하였으며 내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총 26억 원을 투입해 2021년 9월부터 전시 콘텐츠 개편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장보고기념관 1층에는 동아시아 바다를 누빈 장보고 선을 복원하여 거센 파도를 항해하는 정신을 표현했다. 2층에서는 장보고 대사와 관련된 '지도, 바다, 적산법화원, 금(무역), 도전, 자기' 등을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특히 눈으로만 보는 관람이 아닌 다양한 체



험을 할 수 있도록 '장보고 대사 일대기', '청해진 과거' 등 인터랙티브 영상을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평일에 하며, 9월 1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중 관람료는 무료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오!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